

# 경영학 교육에 있어 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웹(Web) 활용

백 상 용\*

On the Web Use as a Complementary  
Lecturing Tool for Management Education

## < 목 차 >

개요	IV. 경영학 전공 교수들의 웹사이트 활용
I. 서론	V. 경영학 교육에 있어 웹사이트 활용을 위한 제언
II. 강의유형	참고문헌
III. 학습전략과 웹 활용	ABSTRACT

## 개 요

대학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대학 강의 유형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위주의 강의유형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경영학 교육에 실행함에 있어 웹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172개 4년제 대학의 315개 경영학 강의 웹사이트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학생 위주의 강의 유형을 위한 웹기술을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강의유형, 학습전략, 웹사이트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접수일자 : 2003-3-10      게재확정일자 : 2003-11-10

## 1. 서 론

한국 고등교육의 주축인 대학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학령인구의 자연 감소라는 예측이 가시화되고 IMF 사태 이후 고학력 실업이 일시적 현상에서 지속적 사회현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대학의 위기감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물론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 역시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이 각 대학의 교육방침으로 등장하고 있다(동아일보, 2003.2.26).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학제(손홍숙, 2001) 혹은 전공(배소연, 2001)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강좌와 관련된 미시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류춘호 & 이정호, 2003). 그러나 현재의 대학들은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시적 측면보다는 홍보효과가 큰 거시적 측면에서의 수요자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속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권대봉 외, 2002).

대학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는 전 세계 대학 교육 관련자의 중요관심사이다(길양숙, 2001; Tsichritzis, 1999). 특히 최근 들어 대학교육과정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경영학 각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Alavi, et al., 1997). 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개념이 널리 인식되면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교육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의 강사\* 중심의 주입식 혹은 일방적 지식 전달 방식에 치중한 교습(teaching)보다는 학습(learning)이 대학 교육의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즉 강사 위주의 교습에서 학생의 지식과 기능 습득 여부에 관심을 갖는 학습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강사의 역할도 선생(teacher)에서 코치(coach)나 멘토(mentor) 혹은 컨설턴트(consultant)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ander et al., 2000).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대학의 강의 및 학습 방향의 변화에 있어 정보기술 활용 특히 웹(World Wide Web) 기능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웹 기능은 다양하게 대학 강의에 활용되고 있으며 면대면 교육을 대체하는 원격교육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면대면 강의의 대체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으로서의 웹 활용 방안과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 본 논문에서 '강사'는 대학 정규 교원과 시간 강사 등 대학 강의를 담당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의 통칭이다.

## II. 강의유형과 전략

본 논문은 수요자 중심 교육의 미시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수업내용과 강의방식을 기준으로 강의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첫 번째 분류기준인 강의방식은 강의의 중점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두는 'teaching형'과 학습의 동기부여와 학습과정에 두는 'learning'형으로 나누었다. 기본적으로 강의방식은 강의실의 주된 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는지 아니면 강사 중심으로 구성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강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정도가 표면적인 강의방식의 척도가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강의성과를 학생 측면에서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강사 측면에서 측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Wachtel, 1998). 두 번째 기준인 수업내용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강의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 강사중심과 학생중심으로 나누었다. 물론 대부분의 실제 강의는 teaching형과 learning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수업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강사와 학생의 관점과 수요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분법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강의를 유형화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유형 네 가지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교습 위주의 방식으로 그 내용은 강사의 관점 혹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이다. 오랫동안 한국 대학의 강의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를 '전통형'이라 이름 붙였다. 전통형에서 진화한 모습 중 하나는 '피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정보와 지식 제공 위주의 강의방식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된 경우이다. 전통형에서 변화한 다른 유형은 강의내용은 강사 위주로 구성되지만 그 내용의 효과적 전달과 학습을 위하여 학습자 관점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계몽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강의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강의방식을 말한다. 전통형과 대비된다는 뜻으로 '혁신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1] 강의 유형: 강좌 단위

		수업 내용	
		강사 중심	학생 중심
강의 방식	Teaching형	전통형	피상형
	Learning형	계몽형	혁신형

각 유형은 강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고 과목의 성격에 따라 선택가능한 유형이 한정되지만 기존의 강의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계몽형'과 '혁신형'이 오늘날 대학 강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학습 위주의 강의방식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웹과 e-mail 기능이 유용하며(Phoha, 1999) 이를 통해 강의의 물리적 범위가 강의실이라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된다. 즉, 학습 위주의 강의방식은 단순한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방법과 질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며 정보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Alavi et al., 1997). 다음에서는 학습 위주의 강의유형을 위한 학습유형과 그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기술이 대학교육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강의를 통한 강사의 지식 제공과 학생이 그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통합되고, 강사와 학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해지면서 학생의 학습과정에 강사의 참여가 용이해졌다. 이는 학습 위주의 강의유형을 채택할 경우 학습의 과정과 유형을 이해하고 강의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loom et al.(1964)는 학습 유형을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그리고 정신 운동적(psychomotor)로 나누고 인지적 학습 유형을 다시 여섯 유형으로 나누었다 ([표 2] 참조). 첫 번째 유형은 '지식'으로서 고객에게 가격을 알려주거나, 보안규칙을 암기하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은 단순한 암기 능력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고 학습자의 언어체계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해'를 말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적용'으로서 지식에 대한 추상화 단계를 거쳐서 지식을 학습한 상황 이외에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네 번째는 '분석'으로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다섯 번째는 '종합' 능력으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과정을 설계하거나 현행 업무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새로운 예산안의 검토와 승인 여부 또는 문제 해결 방안 중 최적 해결책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은 유형일 뿐 아니라 단계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즉, 이전 단계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 경영학 교육에 있어 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웹(Web) 활용

[표 2] 학습 유형

유형	설명
지식(Knowledge)	자료나 정보를 저장하여 기억하는 능력
이해(Comprehension)	지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적용(Application)	새로운 상황에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분석(Analysis)	지식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각 요소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종합(Synthesis)	지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평가(Evaluation)	아이디어 혹은 물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위 여섯 가지 학습유형 중 대학교육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적어도 적용 이후의 단계를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분석과 종합단계를 강의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학습 유형에 적용 가능하지만 적용 이후의 학습유형에 유용한 강의 및 학습 전략을 Laurillard(1993)의 전략에 따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강의 및 학습 전략

강의 및 학습 전략	내용
지식 구조에 대한 이해	학습 주제에 대한 체계
부분의 통합	지식표현 방법의 통합 및 개념 연결
실제 행동	실험 수행,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피드백 활용	시험에 대한 평가
목적-행동-피드백의 연결	일련의 활동의 연결을 통한 학습

우선 학습대상의 지식 구조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습주제의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각 부분의 의미를 연결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지식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습득한 지식을 직접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하여 적용하게 되며 그 적용과정과 결과로부터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의 유효성과 적용 한계를 파악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강의 및 학습전략은 전통적인 교습 위주의 강의방식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정보기술과 결합된 학습 위주의 강의방식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현재 PC 프로그램, 통계패키지, CAD/CAM 등 다양한 정보기술이 대학교육에 활용되고 있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잠재력 또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웹 기능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강의 및 학습전략 실현 방안을 살펴본다.

### III. 학습전략과 웹 활용

우선 하이퍼텍스트 (Hypertext) 및 하이퍼미디어 (Hypermedia)기능을 가진 웹을 교육에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exander, 1996). 첫째, 강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interactivity)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기존의 강의가 갖는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채팅이나 e-mail 혹은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여 동기적 혹은 비동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둘째,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의 심화학습을 가능하게하고 나아가서는 학문의 협동자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웹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과 정보 및 지식 제공 기능은 통합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은 강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한다. 즉 강사 이외에 다른 수강 학생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이는 지식의 범위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통합된 학습 경험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강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강의 내용이 충실히 제공될 경우 강의 내용의 복습 뿐 아니라 학생의 수준과 학습 속도에 따른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은 웹의 장점 또는 활용 가능성과 강의 및 학습 전략을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구조의 경우 그 자체가 선형이 아니라 입체적이며 비선형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hypertext 구조에 적합하며 이는 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표현 가능하다. 둘째, 부분의 통합은 웹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 통합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지식의 시각적 표현에도 효과적이다. 셋째, 가상현실 혹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면 실제 지식의 적용과 그 한계를 통합학습형태로 경험할 수 있다. 넷째, 강사와 학생의 개인별 상호작용 뿐 아니라 학생끼리 혹은 관련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이는 학습에 대한 피드백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학문의 협동자가 될 경우 지식의 창조와 공유 및 적용까지를 연결지어 목적-행동-피드백의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표 4]는 강의 및 학습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웹의 유용성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경영학 교육에 있어 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웹(Web) 활용

[표 4] 강의 및 학습전략과 웹 활용

강의/학습 전략	Web 활용
지식 구조에 대한 이해	hypertext 구조는 지식 구조 표현에 적절하다.
부분의 통합	통합학습경험, 지식체계의 시각적 제시
실재 행동	통합학습경험
피드백 활용	상호작용이 가능
목적-행동-피드백의 연결	학습자를 협동자

### IV. 경영학 전공 교수들의 웹사이트 활용

지금까지 수요자 중심 교육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학습성과 촉진도구로서 웹 활용의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웹 기능의 가능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실제 한국 대학 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웹사이트의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2003년 4월 현재 yahoo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4년제 대학 228개 대학교 중 경영학 전공을 갖고 있는 172개 대학교의 교수별 강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그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거의 모든 대학의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대학교의 경영대학, 경영학부 혹은 경영학과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었으며 그 홈페이지의 링크를 이용하여 개별 교수의 강좌 웹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었다. 물론 경영학 및 경영학 관련 전공의 모든 교수가 웹사이트를 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교수 개인의 특성(예를 들어 전공 혹은 연령)에 따라 웹사이트 활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강의 보조수단으로서 웹사이트 기능 활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개인 교수의 특성에 따른 웹사이트 활용은 연구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172개 대학의 300명 이상의 경영학 관련 과목 강의 교수의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활용 상태로는 강의 웹사이트 기능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강의 웹사

## 백 상 용

이트가 특색없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수소개, 강의록 제공, 질문과 답변, 공지사항 및 게시판, 그리고 메일 보내기 등과 같은 기능을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과제물 제출 및 확인 그리고 쪽지보내기 기능과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게 제공되는 기능이었고 그러한 기능이 있더라도 많이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각종 사진 및 앨범 기능 그리고 개인 에세이 혹은 칼럼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각 기능별 조사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강의 웹사이트 기능 분포

기능	보유 비율 (n = 315)
교수/연구실적 소개	89.5 %
강의록/강의자료 제공	72.4 %
질문과 답변	54.3 %
공지사항/일반 게시판	63.2 %
메일 보내기	78.1 %
과제물 제출 및 확인	4.0 %
쪽지 보내기	1.6 %

둘째, 웹사이트 기능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그 사용정도(예를 들면, 강의록 제공 회수 및 다운로드 회수, 게시판의 내용 및 회수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와 강사와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 기능별 사용빈도를 조사 자료로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각 게시판의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따라 강의자료게시판으로 개설된 것이 과제제출 및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게시판 하나를 거의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강좌별 학생 수 그리고 강의의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의 절대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셋째,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은 지식과 정보 표현을 위한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또는 하이퍼미디어(hypermedia)의 활용과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강의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파일 혹은 강의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학생과의 상호작용 역시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 경영학 교육에 있어 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웹(Web) 활용

요약하면, 경영학 관련 교수들의 강의 웹사이트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제공 역시 웹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문서전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의 강의유형이 [표 1]에서 제시된 전통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며 학습 위주의 계몽형과 혁신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기술 활용 이전에 수요자 중심 강의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V. 경영학 교육에 있어 웹사이트 활용을 위한 제언

현재 한국의 경영학 관련 교수들의 웹사이트 활용은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웹 기능의 장점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이유는 단순히 웹 활용 능력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강의의 기본적 지향점이 변화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는 강의에서 웹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습 위주의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웹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단순한 강의록 제공에 머물지 말고 자가시험(self-testing) 기능과 같은 평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시험을 통한 학습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심화학습을 조장할 수 있다. 경영학 관련 사이트는 아니지만 Konstan et al.(1997)의 연구결과를 보면 웹을 통한 자가평가 기능이 학습환경과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웹을 통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웹사이트를 통한 학생과 강사의 상호작용 빈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낸다. 즉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이트는 매우 활발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거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를 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며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매우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학생의 질문에 대한 24시간 내 응답 그리고 정기적인 강의록 게시와 같은 강사의 성실한 웹사이트 활용태도와 실행을 통해 웹사이트의 유용성이 학생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계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기능적 신뢰 뿐 아니라 사이버

## 백 상 용

상의 상대방들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 사이버 포럼(forum)의 개최나 외부 전문가 초청 등과 같은 이벤트를 통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및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면대면 강의를 통한 강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구축이다.

셋째, 웹이 갖는 개방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회나 연구모임이 주축이 되어 경영학 교육에 있어 웹 활용에 관한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사이버 상에서 구축하여 강의 경험과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유사한 예는 Queensland University의 WebWorkers이다.

넷째, 기존의 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웹사이트들은 강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학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의 웹사이트들은 학생들이 웹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학생의 개인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학생(지식 수요자)가 강사(지식 제공자)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강사가 학생을 찾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많은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표준화된 개인 교수용 웹사이트 뿐 아니라 표준화된 학생용 개인학습 웹사이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 수강신청 시스템, 개인 교수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학생 개인학습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거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 개인학습 웹사이트는 재학 중 수강한 모든 과목의 자료와 보고서 등을 한번의 접속을 통해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지식전달과 열람 방식의 변화는 웹사이트 활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웹 활용이 양적 및 질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제언들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강의를 위한 웹 관련 기술의 제공과 매체 제작을 위한 지원이 대학 측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봉 외(2002)의 연구에서 분석되었듯이 한국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개혁이 한국 대학사회의 구조가 된 지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입장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웹 기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 계정을 제공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권대봉, 오영재, 박행모, 손준중, 송선희 “대학생들의 교육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교육학연구, 40(3), 2002, pp. 181-202.
- 길양숙 “대학교원의 수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활동의 조건” 교육학연구, 39(2), 2001, pp. 329-350.
- 동아일보 “서정돈 성균관대 신임총장 4년뒤 자연과학대 국내최고 될 것” 2003년 2월 26일.
- 류춘호, 이정호 “대학의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2(3), 2003년 6월, pp. 789-807.
- 배소연 “4년제 유아교사양성 대학교의 전공교육과정 연구” 교육학연구, 39(4), 2001, pp. 271-290.
- 손홍숙 “학부제의 유형과 대학교육과정의 변화” 교육학연구, 39(4), 2001, pp. 155-182.
- Alavi, M., Yoo, Y. and Vogel, D.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Add Value to Management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6), 1997, 1310-1333.
- Alexander, S. “Teaching and Learning on the World Wide Web,” 1996. [URL] <http://elmo.scu.edu.au/sponsored/ausweb/ausweb95/papers/education2/alexander/>
- Bloom, B., Mesia, B. and Krathwohl, D.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1964.
- Easter, D. “CAI, lecture, and student learning styl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structional method,”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27(4), 1995, 129-139.
- Fitzelle, G., Jr. and Trochim, W. “Survey Evaluation of Web Site Instructional Technology: Does it Increase Student Learning?” 1996.[URL] <http://trochim.human.cornell.edu/webeval/webques/webques.htm>
- Laurillard, D. *Rethinking University Teaching: a framework for the effective use of educational technology*, Routledge: London, 1993
- Milheim, W. and Martin, B. “Theoretical bases for the use of learner control: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Journal of Computer-based Instruction*, 18(3), 1991, 99-105.
- Phoha, V. “Can a course be taught via e-mail?” *Communications of the ACM*, 42(9), Sept. 1999, pp. 29-30.
- Sander, P., Stevenson, K., King, M. and Coates, D. “University Students’ Expectations of Teaching,”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5(3), 2000, pp. 309-323.
- Tsichritzis, D. “Reengineering the University,” *Communications of the ACM*, 42(6), June 1999, pp. 93-100.
- Wachtel, H. “Student Evaluation of College Teaching Effectiveness: A Brief Review,”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3(2), 1998, pp. 191-211.

## ABSTRACT

### On the Web Use as a Complementary Lecturing Tool for Management Education

Baek, Sang-Yong\*

This study deals with the current use of WWW(World Wide Web) as a complementary tool for the lectures in the Management Education in the Korean universitie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current lectures, a framework for categorizing the lecture types is developed and define the direction of the Korean Management education. And learning types and learning strategies are presented from the education literature..

For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using WWW, a mapping of how to use WWW to install the learning strategies are performed.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urrent lecture web-sites used by Korean Management professors in 172 universities, several recommendations of how to use the web-sites as a complementary tool more effectively are suggested.

**Keyword** : *Web, Management Education, Teaching Style*

---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ju University